

## 誤 解\*

鄭 雲 章

돌이켜 보건대 반세기 전의 일이 되고 보니 꽤나 해묵은 얘기이다. 당시는 한국동란 초기인지라, 20대의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때로는 30대 까지도 군에 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때였다. 당시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나는 마침 니시군 연락장교 후보생을 모집한다기에, 이왕 갈 바에야 하고 이름이 근사한 거기에 응모하였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그러하였는지, 의외로 경쟁율이 높았으나, 다행히도 영어시험과 신체검사에 합격할 수 있어서, 소정의 단기교육(그 당시는 어떤 병과를 막론하고 모두 단기 속성교육이었다.)을 마치자, 단번에 육군 중위로 임관되었다. 그 무렵은 국군이 평양을 이미 탈환하고 압록강변의 초산, 두만 강변의 혜산진까지 진격하던 때라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생이던 내가 육군중위의 계급장을 단 것이 도무지 실감나질 않아, 스스로 어리둥절 하곤 했다.

내가 처음 발령받은 부산 포로경비대대 서면(西面)파견대에 부임한 것은 그 해(1950년) 늦 가을이었다. 막상 부임해 보니, 이름은 파견대이지만 그 자체가 4개 중대를 두고 있는 큰 규모의 부대이었다. 거기에는 당시 장교가 극도로 부족하여 중사, 상사가 소대장을, 소위가 중대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나마 중대장이 없는 중대도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단번에 중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다 보니 군대 업무에 서툴러 실로 抱腹絶倒할 헤프닝이 더러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어려웠던 것의 하나는 중대원에게 지시하거나 말할 때였다. 나는 늘 하던 습관대로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쓰곤 했는데, 이를 고치기가 쉽지 않았다.

“중대장님, 제발 말씀 낮추십시오.”

“예, 예, 그것 참…… 차차 낮추겠습니다.”

늘 이런 식이 되고 말았는데, 그래도 중대원들은 이 서툰 중대장에게 동정했음인지

---

\* 이 글은 2000년 12월에 발간예정이었던 선생님의 「교회기념논문집」에 게재하고자 생전 선생님께서 보내신 글입니다.

매사에 잘 따라 주어, 중대원의 각종 근무상태를 통계내어 매달 선정하는 그 달의 모범 중대로는 우리 중대가 연이어 뽑히는, 아마추어가 프로(직업군인 중대장)에게 연전연승하는 아이러니칼한 일도 있었다.

거기에도 그 당시, 포로경비대대는 미군 후방사령부에 배속되어 있었으므로 늘 어떤 형태로는 미군과의 접촉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업무를 또 연락 장교인 내가 맡고 있었는데, 아직 영어회화에 능통하지 못한 때라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게 되고, 그 오해가 뜻밖의 방향으로 확대된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 이 얘기는 바로 그런 어이없는 젊은 날의 헤프닝의 한 토막이다.

그 무렵, 우리 중대가 맡은 임무는 매일 부두에서 작업하는 포로들을 아침 일찍 인솔해 가서, 거기서 작업을 감시하고 저녁 노을이 질 때 쯤 다시 포로들을 인솔해서 수용소로 되돌아오는 일이었다. 왕복 30리 길을 걸어서 오가는 것이 처음엔 다소 고대기도 했으나, 매일 되풀이하다 보니 곧 습관처럼 익숙해 졌다. 작업 중에 별다른 큰 사고도 없었기에, 매일 근 종일을 바다를 바라보며 갈매기를 벗삼아 간간이 울리는 뱃고동도 정겹게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조금은 단조롭지만 낭만적이기도 하여 전시의 군대 근무로는 좀 생각 할 수 없는 편안한 생활이었다. 그런데 한가지 흠은 그 편한 근무 중에 귀찮은 일이 곧잘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그 작업장에는 RATION등의 미군 식료품과 의복 · 내의(內衣)등의 물자가 여러 곳에 山積되어 있어, 이것을 포로들의 荷役하는 것이었으므로 아무리 감시를 한다고 해도 작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물론 그 사고란 별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포로들이 작업 중에 몰래 양말을 몇 켤레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던가, 내의를 몇 개 껴입었다던가 또는 레이션을 뜯어서 먹는다던가 하는 극히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았다. 부두에서 근무하는 병참부대 미군들은 그 정도의 일은 사고로 치지도 않는지, 보고도 그냥 웃고 지날 뿐이었고, 도리어 먹으라고 자기네들이 상자를 뜯어서 내어 주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골치 아팠던 것은 그것을 일일이 사고로 치부해서 떠들석하게 야단치는 미군이 한 사람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수용소 본부에서 매일 작업장에 따라 나오는 미군 MP하사관이었다. (그의 이름은 잊어버렸으나, 계급은 중사이었다.) 이 녀석만은 어떻게나 딱딱한지, 온 신경을 그러한 “사고” 적발에만 집중하여, 비누 한 장, 담배나 초콜렛 하나라도 발견되는 날이면 길길이 뛰면서 수용소 본부에 일일이 보고하여 때로는 처벌

케 하는 등 결코 용서란 것을 몰랐으며, 급기야는 작업 후에 포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면밀하게 신체 검사를 하고서야 수용소로 돌아가게 하여, 수용소에 도착하는 시간이 한 시간 이상 늦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는 좀처럼 없어지질 않았다. 따라서 그 MP하사관은 언제나 한국 사람들을 極口惡罵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심지어는 우리 중대 경비병에 대해서 까지 의혹의 눈초리로 대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도 나에 대해서만은 내 직책을 보았음인지, 비교적으로 경의를 표하는 듯 하였으나, 그러한 처지에서 우리들의 사이가 좋을 리는 없었다.

바로 이 무렵의 일이었다. 소위 “비누상자 사건”이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난 것은 2월 달(1951년) 어느 꽤 따스한 날 저녁이었다. 작업을 마치고 내 사무실로 돌아가려 할 때, 그 MP가 뜻밖에도 큰 상자 하나를 들고 와서 내 앞에 놓더니 뭐라고 빨리 지껄이는 것이 아닌가. 원래 그의 말은 발음이 고약한데다 어저나 빠르지 알아듣기에 힘이 들곤 했는데, 그날 따라 유별나게 빨리 지껄이기에 유감스럽게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하였다. 나는 두 세 번 되풀이하여 물었으나 역시 알 수가 없었고, 나중에는 그가 짜증을 내는 것 같아서 그만 덮어놓고 그 대답을 하고서는 그 상자를 달게 받았던 것이다.

뭐라고 하는지 다 알아차리지는 못하였으나, 그의 말 중에서 PRESENT라는 낱말이 몇 번인가 되풀이 되었기에, 나는 그 MP가 상자를 나에게 선물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하기가 선물을 건네주는 사람치고는 그 말투가 그리 부드럽지 못한 것이 다소 마음에 췌겼으나, 그는 원래가 그런 爲人이니 하고, 선의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또 웬일인지 “Thank you”하면서 상자를 들고 가는 나를 그가 자꾸만 쳐다보면서 혼자 중얼대던 것도 좀 미심쩍어하기는 했으나, 나는 꽤 유쾌한 기분으로 사무실로 돌아 왔다.

“그게 도대체 어디서 생긴거요?”라고 묻는 동료들에게 “아니, 이건 미군 MP로부터 선물 받은거요.”라고 지극히 태평치면서 뜯어 보니 그 속에는 LUX비누가 꼭 들어 있었다. 그리하여 그날 저녁 나는 부대 동료들에게 큰 인심을 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원래 호사는 다마(好事多魔)라고 하였겠다.

후일에 알고 보니, 그 비누상자는 MP가 나에게 선물 준 것이 아니라 기실인즉, 포로가 부대에서 훔쳐 용하게도 수용소까지 가지고 온 것을 어떤 우리 경비병이 발견하여 압수해 놓고, 보고를 해야 하는 데에도 보고하지 아니하고 도로 그 병사가 들고 가는 것을 마침 자기(MP)가 발견해서 상자를 빼앗고 그 병사를 힐난했더니, 당황한 그 병사는 그만 PRESENT, PRESENT(선물 받았다는 뜻이겠지)라고만 변명하니 이것이 말

이 되느냐, 그러한 병사는 단단히 문책해 달라고, 말하자면 중대장인 나에게 일러준 것인데, 그러한 복잡한 내용을 빨리 제재거리니, 대학재학중에 군에 입대하여 처음으로 미군과 접하던 당시의 나로서는 어떻게 알아 들을 수 있겠는가? 그저 모르는 가운데에도 PRESENT란 낱말만 귀에 들려오니 모든 것을 좋게 해석해서 주는가 보다하고 가지고 왔을 뿐이지…….

따라서 그때 그 MP가 내심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였으며, 수용소 본부에 어떻게 보고 했는지, 본인인 나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니 내 마음은 그 후에도 언제나 春風駘蕩이었다.

이러한 서곡이 있는 다음, 별다른 일 없이 몇 일 지났다. 속은 어쨌든 표면적인 MP의 태도는 전과 다른 점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병사가 그런 “사고”로 인하여 나에게 보고된 일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 중대,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국군의 위신문제와도 관계되는 일이므로, 나는 즉석에서 그 MP에게 이것은 절대로 흠친 것이 아니라, 부두에서 어떤 미군이 수고한다고 직접 주는 것을 내가 목격하였노라고 변명하여 그런 보고를 부정해 버렸다. 실제로 미군이 주는 일도 허다하였으니깐 …….

MP는 내말에 대하여 무척 불만인 듯 하였으나,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돌아가버리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몇번 있는 뒤에, 사건의 발달은 실로 예상하지 못한 때에 터진 것이다.

그날도 저녁 늦게 부두에서 돌아와, 식당에서 혼자 늦은 식사를 하고 있노라니, 다른 중대장인 J소위가 곁에 와서 실로 驚天動地의 사실을 일러주지 않은가. 그것은 내가 포로들과 경비병들을 시켜서 부두에서 물품을 훔쳐낸다는 보고가 우리 파견대본부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아니, 그게 말인가. 도대체 누가 그 따위 보고를 했나?”

나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들던 손가락을 허공에 멈춘채 반문하였다.

“작업책임자인 미군 MP하사관이 오늘 파견대장에게 보고했다고 따라 온 통역관이 나더러 얘기하던데 ……”

“그게 사실인가?”

“사실이고 말고……. 그 MP가 대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나도 보았는 걸.”

“음…….”

나는 신음 하였다.

“이 놈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서…….”

선량한 이 나라의 백성을, 그것도 중대장이란 직책에 있던 나를 가리켜서 그 당시의 말로 “부둣가 암생이꾼”의 한 두목이라고 했겠다……. 이것은 도저히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문제이었다.

“식사나 해요. 그까짓 보고를 우리 대장이 신용하겠어요? 웃기는 애기지.”

내가 잠시동안 식사를 중단하고 있으니 J소위는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었다. 사실이지 종일을 부두에서 지냈으니 배도 고팠다. 나는 다시 식사를 계속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너무나 뜻밖의 일로서 마음 속으로부터 치밀어 오는 격분을 억제 할 수 없었다. MP의 보고를 파견대장이 믿을리는 없지만, 그보다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는 그 MP에 대하여 짧은 내 혈기와 결백성이 그대로 이 사실을 묵과할 수없도록 하였다. 결코, 결코! 나는 계속하던 식사를 다시금 중단하였다. 이것은 비단 나 개인의 명예회손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사람을, 한국군 장교를 어떻게 보았기에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짧은 시간이-아마 5~6분쯤 되겠지, 창백하게 긴장된 시각이 식당안에서 흘렀다.

“어디 두고 보자.”

나는 문드러지라고 입술을 깨물었다.

나중에 혼자서 생각해 보니, 일전의 내 서투른 영어 청취력이禍가 된 그 비누상자 사건이라든가, 꼬리를 물고 연달아 일어나는 “사고”라든가, 또는 그럴 때마다 책임자로서 취하는 나의 변명이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본 결과, 그 MP가 내린 추측이 아마 나를 의심케 했던 모양인데, 이유는 고사하고 여하튼 나에겐 그러한 추측자체가 중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었고, 더욱이 그 추측이 인종적 편견에 입각한 것 같아서 내가 느낀 모욕감은 이중적 분노로 폭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흥분은 드디어 절정에 달하였다.

‘결투다! 단연코 나는 그놈과 결투해야 한다!’

불현듯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나는 왈칵 자리에서 일어서기 바쁘게 밖으로 뛰어 나갔다. 뒤에서 J소위 가 뭐라고 부른 것 같았으나 벌써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영문까지 뛰어온 나는 거기서 문득 결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혼자 自問하고서는 다시금 사무실 안에 되돌아 와서 재빨리 콘사이스 사전을 찾아 보았다. 나는 두어번 반복 암송하고서는 또 ‘너는 나를 모욕했다고 하자면 모욕은 뭐였지?’하고 다시 콘사이스를 찾아 보고 난뒤, 그 길로 약 200미터 떨어진 미군 부대로 달려갔다.

결투하려고 노발충천하여 나선 사람이 일일이 콘사이스를 찾아 가는 것도 우스운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욱 抱腹할 사실은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무기였다. 그 당시 내가 소지하고 있던 권총은 옛날 일본군 헌병이 주로 사용했다는 소위 14년식 6연발 권총이었는데 이것은 口徑이 “휘리 화이브” 미제 권총보다 훨씬 좁아서 (파발총 구경과 대략 같음) 여기에 맞는 탄환이 전혀 없었고 거기에다 방아쇠가 고장이어서 설령 탄환이 있다고 해도 결발되지 않는 순전히 빗줄은 개살구였지, 실용가치는 전혀 없는 이를테면 노리갯감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말은 콘사이스를 찾아가면서 하고, 무기는 발사되지 않는 고장난, 그나마 알맞는 실탄도 없는 권총을 가지고서, 그래도 力拔山の 기개만은 당당하게 미군 MP와 결투하고자 찾아갔으나, 일은 바야흐로 20세기의 돈키호테와 같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농담은 지금이니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때는 어디 농담정도가 아니었다. 일촉직발의 긴장된 마음, 흥분의 도가니, 참을 수 없는 격분 …… 그런 것들이 서로 교차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내 마음 한 구석에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다. 그것은 미군과 싸우려면 보통의 방법으로 싸워서 인된다는 것이다. 말로 싸워 이길 승산이 없음은 明若觀火이요, 잘못 시비를 걸다가 한대 얻어 맞으면 단번에 KO되고 말 우려가 다분히 있으니, 한다면 실로 奇想天外, 전혀 意表 밖의 허를 찔러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비백산케 하여 그 戰意를 상실케 함으로써 요는 이쪽의 不戰勝의 영광을 얻자는 것이 상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결투를 생각한 것도 단지 순간적인 흥분의 결과가 아니라,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나로서는 背水之陣이었고, 그 동안 미군들과 접하면서 절로 터득한 유일한 작정이었다.

밤 9시 가까이 되었을까? 이른 봄이라고는 하나 밤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상기된 내 뺨에는 寒暖에 대한 감각은 없었다.

손살같이 미군 부대를 향해 달리면서 내 머리속은 여전히 복잡하였다. 다짜고짜로 결투하자고 고함치면, 제 아무리 담대하다 하기로 꼼짝못하고 항복할 것이라……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그놈이 정말 그래 결투하자고 응한다면?……에라 그때는 또 그때이고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 모든 것은 될대로 되겠지…….

나는 그전 부터 그의 숙소를 알고 있었기에 그 숙소의 도어를 힘껏 발길로 찼다. 그것은 아마도 서부 활극에 나오는 한 토막의 장면이 같았으리라.

그 방은 약 10명 가량의 중사급 하사관들의 침실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이 不意의 침입자에 대하여 무척 경악한 모양이었다.

그 방의 중앙부에서 테이블을 끼고 앉아 카드놀이를 하던 4~5명의 미군들이 손에 카드를 든 채 일제히 고개를 들었고, 저편 모서리에서 침대에 누운채 라디오를 듣고 있던 몇명은 의논이나 한 듯 동시에 라디오를 껐고, 책을 보고 있던 이는 책보는 것을 멈추었다. 그리하여 방 안에 있던 20개 가까운 눈동자가 일제히 나에게 쏘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여는 이는 없었다. 순간 무서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한번 실내를 훑어 보고 난 뒤, 그 중사가 버젓이 누워있는 침대가로 갔다. 그는 나의 창백한 얼굴과 타오르는 듯한 눈초리에 그 무엇을 예감하였음인지, 나를 보자 벌떡 상반신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의 손에 쥐고 있던 만화책이 툭하고 마루위에 떨어졌다.

나는 분노의 불길이 쏟아질 듯한 눈초리로 쏘아 보면서 “GET UP!”하고 날카롭게 외쳤다. 그 때 그는 뭐라고 말하려는 듯 하였으나, 나는 그 여유를 주지 않고 다시 내 말을 계속 하였다.

“이놈! 나허구 밖으로 나가자, 도대체 넌 한국 장교를 어떻게 알고 있어? 네 눈엔 모두가 도둑으로 보이냐? 너는 미국 놈이라도 일개 하사관에 지나지 않고, 나는 한국 사람이라도 장교란 말야. 네가 오늘 뭐라고 보고했는지 다 알고 있다. 한국 장교로서 이러한 모욕을 당하고 가만 있을 수 없다. 나가자. 나가서 나와 결투하자! 나왔! 빨리!”

나 자신도 모르게 줄줄 말이 자꾸만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흥분하여 마구 외치는 내 말을 어느 정도 그가 알아 들었는지는 몰라도, 결투라는 말이 내 입에서 터졌을 때, 그리고 나의 오른 손이 허리에 찬 권총 자루를 붙끈 쥐었을때,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하였다. 방안은 내 말이 떨어진 그 순간 죽은 듯이 고요하였다. 모두가 그대로 돌이 된 것처럼 입을 열지 않았으며 움직이지 않았다. 오직 나의 숨결 소리만이 들릴 뿐. 일초가 바로 영원을 느끼게 하는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1초! 2초! 다음 순간에 내 눈앞에 전개된 광경은 …….

나는 그때까지 사람이, 더욱이 미국 사람이 이렇게도 공포에 사로잡힌 얼굴로써 크게 뜬 瞳孔을 허공에 띄우며 哀訴하는 것을 일찍이 보지 못하였다.

인생의 막다른 낭떠러지에서 눈 앞에 다가온 죽음을 응시하듯, 본능적으로 顔面 신경이 당기고 애원하는 赤裸裸한 한 개의 인간상을 나는 바로 그 순간에 보았던 것이다. 그는 힘없이 허공에 양팔을 저으며,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에게 침대에 앉아서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애걸하는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려 잘 들리지 않았으며 그의 양 수족이 와들와들 떠는 것을 나는 역력히 보았다. 실로 생각 외로 너무나도 지나친 그의 태도가 오히려 놀랍기도 하고 속으로 한 편 쾌재도 불렀으나, 나의 흥분은

아직 가지지 않았다.

“Shut up! 잔소리 말고 빨리 따라와!”

나는 권총을 반쯤 끌어 내었다.

“아, 오해입니다. 오해…….”

그는 거의 절망적으로 비틀거렸다. 뺨의 근육이 히스테리칼하게 실룩 거렸다.

“오해? 오해가 다 뭐야?”

“오, 오해입니다. 중위님. 내, 내가 그럴리…….”

그는 말을 더이상 잊지 못하고 나에게 우선 앉아 달라는 시늉을 하였다. 그러고는 다시금 자기 얘기를 들어만 달라고 되풀이 하여 애원하는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필사적인 애소의 빛이 어리어 있었다.

-이쯤 되고 보면 만사는 내가 계산한 대로 적중한 셈이었다. 실재의 결투는 처음부터 나의 원하는 바가 아니오, 오직 상대방의 기세를 꺾어서 부전승을 노리려던 것인데 바로 그대로 된 것이다. 이 이상 사태가 더 악화되어도 사후 수습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나는 거기서 조금 어조를 낮추어 “여하튼 그렇게 까지 사정한다면 이야기만은 들어주지. 그러나 뻔히 아는 것을 거짓말하면 정말 재미 없어”하고 마지막 일침을 가하였다.

“거짓말이라니요? 천만의 말씀!”

그는 펄쩍 뛰면서, 그러나 나의 태도가 다소 완화되었음을 재빠르게 눈치채자 滿面에 안도감과 웃음을 띄우면서, 자기는 절대로 그러한 보고를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고 생각한 일도 없다고 누누히 말하면서, J소위가 전하는 통역관의 말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역설하는가 하면, 또 자기는 기어코 그 엉터리 통역관을 만나서 따져야 하겠다고 극구 변명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 양 손을 잡다시피 절절 매면서 平身低頭하는 그 MP가 속으로 우습기도 하고 가엽기도 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았다는 무슨 증거가 있느냐고 했더니, 그는 누구에게나 당신이 절대로 결백하다는 것과 자기가 결코 그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밤은 이미 늦었으나 우리는 거기서 함께 밖으로 나왔다. 그 때까지 그 어떤 긴장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다른 미군들에겐 그야말로 颶風一過로 생각되었는지 비로서 라디오 음악 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우리 등 뒤에서 흐르기 시작하였다. 그길로 우리들이 파견대장과 수용소 소장을 찾아간 것은 물론이다.

군대에서 처음으로 미군들과 생활 하던 당시의 나의 실패와 그 실패에 대한 代價는 실로 클 뻔했다. 지나고 보면 일은 그 뿐이었으나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 미군 MP가 정말 결투에 응하였더라면…….

그 일이 있는 다음 나에 대한 미군 병사들의 태도가 전적으로 달라졌다. 그때 까지만 해도 미군 사병들이 한국군 장교에게 경례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후 내가 지나갈 때면 나에게만은 어김 없이 嚴正한 거수 경례를 붙이는 것이 아닌가. 어디 그 뿐인가? 그 당시 나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수용소 본부의 Mike중위가 놀러 와서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나더러 한턱 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여보, 당신은 천하의 행운아요. 만약 결투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소? 당신이 졌다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게고, 이겼다해도 말이요. 아무튼 결투하지 않고 이겼으니 이런 일이 또 어디 있겠소! 자, 당신의 행운을 진심으로 축하하요.”

나는 다만 말없이 웃을 뿐이었다. 흥분이 완전히 사라지나, 내 마음에는 승리의 기쁨 속에 一抹의 씁쓸함과 그 어떤 뉘우침이 스며드는 것이었다.

그 몇일 후 나는 조용한 시간을 타서 그 MP를 찾아갔다. 그도 진심으로 반가이 맞아주어, 우리들은 서로가 오해하였던 것이라고 哄笑하면서 앞으로의 우의를 굳게 다짐하였던 것이다.

애당초 오해는 누가 먼저 하였는지는 몰라도, 인간이란 언제나 극히 사소한 일로써 서로가 오해하게 되면, 왕왕 그 오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 하기도 한다는 것을 나는 거기서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어찌다 생각이 그때 그 일에 미칠 때면, 나는 스스로 내 목을 한번 쓰담으면서 그 어떤 쓴 웃음과 함께 전율을 금할 수 없다. 만약 그때 그 미군도 분개하여 서로가 결투하자고 정말 권총을 뽑게 되었더라면?……

모든 것이 무사히 끝났음을 나는 오직 감사하게 생각할 따름이다.